

## ‘아미타삼존정도도’ 및 ‘불교 전래의 길과 야쿠시지 절(藥師寺)’

식당 내부에는 유명한 일본화가이자, 도쿄예술대학의 명예 교수인 다부치 도시오(1941~)가 그린 길이 50m의 회화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삼장원 내에 안치되어 있는 히라야마 이쿠오의 그림(대당서역벽화)에는 경전을 찾아 현장법사가 고향인 중국을 떠나 인도 각지를 순례한 17년간의 여행이 그려져 있는데, 이 히라야마의 제자인 다부치의 작품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불교가 전래되었을 당시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건물 중앙에 있는 것은 본존인 ‘아미타삼존정도도’입니다. 아미타는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앞에 보살을 거느리고 나타난다고 여겨지는 부처입니다.

‘불교 전래의 길과 야쿠시지 절’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일련의 회화들은 중국으로 건너가 불교의 교리를 배웠던 일본인 승려들이 배를 타고 귀국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긴 여정 끝에 야쿠시지 절 창건 당시 일본의 수도였던 후지와라쿄에 도착합니다. 한 장의 그림에 그 당시 사찰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에는 약 1300년 전에 후지와라쿄에서 천도한 헤이조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천도와 함께 야쿠시지 절도 지금의 위치로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삼장원 내에 있는 히라야마 이쿠오의 여러 그림 중에는 현장이 17년간의 여행을 시작한 출발점이었던 장안(현재의 시안) 대안탑의 그림도 있습니다.

식당 내부와 회화는 특별한 시기에만 일반에 공개됩니다.